

있는分野이다. 또 現存의 資料에 대하여도 그 하나 하나에 研究調査의 餘地가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새로운 資料를 加하여 樣式上의 發達過程이나 技術의 傳承 같은 側面이 좀 더 밝혀져서 本考의 未恰한 點이 補完되기를 期待할 뿐이다.



靑島大寺鐘原名

- ① 黃壽永 編著「韓國金石遺文」一九七六年刊 서울 一志社
- ② 至正四年銘 重興社 靑銅縷銀香爐—奉恩寺所藏—의 銘文에는 「：縷手中郎將金郷」의 例가 있다. 中郎將이 軍職이라면 正五品의 武官이나 鑄金匠에는 이와 같은 높은 官職者를 볼 수 없다. 別將同正에 對하여는 四. 「官匠의 社會」 參照
- ③ 黃壽永〈新羅高麗 在銘禁口考〉—海圓黃義敦先生 古稀記念 史學論叢—
- ④ 藤田亮策〈高麗鐘의 銘文〉「朝鮮學報 第一四輯」
- ⑤ 坪井良平「朝鮮鐘」一九七四
- ⑥ 李基白「高麗兵制史研究」〈高麗 軍班制下の 軍人〉(一九七九 一潮閣)
- ⑦ 旗田巍〈高麗의 武散階〉朝鮮學報 第二二・二二合輯.
- ⑧ 李基白 前掲書〈高麗 州鎮軍研究〉
- ⑨ 劉敎聖 韓國商工業史「高麗時代의 商工業—韓國文化史大系Ⅱ 一九六五
- ⑩ 坪井良平「朝鮮鐘」〈朝鮮鐘의 鑄造〉一九七四.
- ⑪ 坪井良平 前掲書에는 巨濟 河清部曲 北寺鐘의 同銘異鐘 二座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釜山市立博物館長)

# 朝鮮時代分院의 成立과 變遷에 관한 研究(一)

—廣州一帶 陶窯址를 中心으로—

尹 龍 二

## I、序 言

京畿道 廣州郡 一帶는 司窰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이 朝鮮時代 初期부터 成立되어 末期에 이르기까지 영위되었으나 朝鮮時代의 모든 種類의 陶磁器를—白磁、白磁象嵌、靑磁、靑磁象嵌、靑華白磁、鐵繪白磁、辰砂白磁、粉靑沙器—등이 製作되었던 수많은 陶窯址가 구릉 위에 有存하고 있다.

이처럼 廣州一帶는 朝鮮時代의 分院이 集中的으로 營爲되었으므로 이 곳의 調査研究는 朝鮮時代 陶磁器의 核心을 體系的으로 研究하는 일이다. 廣州一帶의 陶窯址를 보다 세밀히 調査해 간다면 時代에 따른 陶磁器의 製作場所、製作方法、器形의 變化、陶窯의 構造、 나아가서는 沙器製造所로서의 分院의 變遷 등 朝鮮時代 陶磁器 全般의 變遷과정을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실제로 廣州一帶의 陶窯址 調査를 통해 새로운 많은 陶窯址를 찾아낼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새로운 事實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現在까지의 朝鮮時代 陶磁器發達史 研究에 어떤 점은 보충할 수 있었고 어떤 점은 새로운 수정을 必要로 하였으며 많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었다.

예를 들면 朝鮮時代의 靑磁가 廣州一帶의 道馬里와 牛山里窯址에서 出土되는 것으로 알려져, 十五世紀 頃까지 製作된 것으로 믿어져 왔으나 이번 調査를 통해 각각 다른 22個의 陶窯址에서 出土되어 그 製作地域, 製作時期,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었던 점이라든지, 「干支」의 銘文이 있는 陶窯址가 새로 7 곳에서 發見되어 그 銘文을 通해 窯址의 존속기간, 각 陶窯址 간의 變遷移動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점과 文獻調査를 通해 「承政院日記」에서 一六六五年부터 一六七六年까지 一二年間 설치되었던(新垆里)分院과 一六七七年부터 一〇여년간 司饗院의 分院으로 있었던 塔立洞窯址와 一七二七年부터 一七二〇년까지 設置 운영되었던 五陽洞分院의 發見과 실제의 窯址를 확인 조사함으로써, 그 시기의 陶磁器의 發達을 보다 확실히 알 수 있었던 점이 있다.

또한 한 窯址에서 十年 간에 걸쳐 製作되었던 매개의 干支가 陰刻된 陶片을 發見할 수 있어 分院이 十年을 주기로 樹木이 茂盛한 곳을 찾아 移動하였다는 文獻記錄을 立證할 수 있는 등 많은 새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資料를 기초로 해서 朝鮮時代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으로서 分院의 變遷過程과 이에 따른 朝鮮時代 全般에 걸친 陶磁器의 發達과정을 세워보고자 했다.

## II, 司饗院과 分院

### 一, 司饗院

司饗院은 「經國大典」吏典 司饗院條에 依하면 「司饗院 掌供御膳及闕內供饋等事」라 하여 國王의 食事와 大闕內의 宴會에 쓰이는 모든 食

事供給에 관한 事務를 管掌한 곳으로 그러한 일을 담당할 18名의 官人이 配屬되었고, ① 그 밖에도 大闕內의 飯監, 別司饗 등으로 불려지는 390名의 各種 差備(최하급 備人)가 闕內의 飲食物을 調理하기 위해 있었으며, ② 所用되는 沙器製造를 위해 三八〇名의 沙器匠이 소속되어 있었다. ③

司饗院은 高麗 穆宗(九八八~一〇〇九年)以來 尙食局, 司膳署의 制度를 따라 朝鮮初 太祖 元年(二三九二年)에 司饗房으로 바뀌어 존속하여 오다가 ④ 世祖一三年(一四六七年)에 司饗院으로 改稱되어 ⑤ 朝鮮王朝末까지 存續되었던 官廳이었다.

司饗院의 職制構成은 經國大典에 依하면 ⑥ 司饗院의 長인 都提調一員, 提調四員, 副提調五員, (一員承旨), 正三品の 提舉一員, 從三品の 提舉一員, 正四品の 提檢一員, 從四品の 提檢一員, 從五品の 判官一員, 從六品の 主簿一員, 從七品の 直長二員, 從八品の 奉事三員, 從九品の 參奉三員과 沙器匠 三八〇人, 書吏六名으로 나타나 있으며,

文獻備考에 依하면 都提調一員은 議政이 例兼하고 提調四員은 一員이 文臣이고 三員이 宗親이며, 副提調五員은 一員이 都承旨例兼이고 四員이 宗親이며 뒤에 正一員(正三品提舉)은 監원하여 嘉禮 때에만 權差하였으며 提舉, 提檢도 監원하여 使客宴亭 때에만 權差하였으며 僉正一員(從四品提檢)과 判官도 監원하고 主簿를 增員하였다.

大典會通에는 正二員(正三品), 僉正一員(從四品), 主簿三員, 直長二員, 奉事三員으로 나타나 있다.

이중 實際 沙器燔造作業은 從八品인 奉事に 依해서 管理되었으며 奉事 中 一名은 分院에서 沙器燔造作業이 있을 때 마다 分院으로 과전되었는데 이를 燔造官 혹은 分院郎廳이라고 불리워졌다 ⑦.

司饗院의 주된 임무가 國王의 食事와 大闕內의 食事 供給을 管掌하는 것이었으며 이에 부수되어 所用되는 沙器燔造를 위해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으로서 分院이 설치되어, 司饗院 소속의 沙器匠 三八〇名이 分院에서 沙器燔造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⑧

따라서分院은 그設置 당초부터 司饗院에서 직접 管掌하였으며 沙器製造場의 규모가 점차 커지고 御用 및 宮中에서의 沙器 需要量이 증가됨에 따라 製造作業 자체가 중요시 됨으로써 직접 현지에서 製造作業을 관할하는 관청이 설치되었으며 이를 司饗院의 「分院」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다.

## 二、分院

### 1) 沿革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을 언제부터 「分院」이라고 부르게 되었는지 分明하지 않다.

「分院」이라는 文字가 記錄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中宗(一五〇六)~一五四四) 때의 사람인 朴祥의 文集인 「訥齋集」에 「分院」이란 文字가 나타나는 詩가 있으나 ⑨ 어떤 뜻의 分院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최근 發見된 資料로서 明宗、宣祖 때의 李魯(一五四四)~一五九八)의 「松巖先生文集」 第三卷 書記條에 「隆慶四年(一五七〇) 여름 窮監察文公이 沙器의 땅 廣州의 司饗分監官이 되어 龍縛을 만들기 위해 書工二人을 禮部에서 파견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어 「分院」이 명확하지 않으나 沙器의 땅 廣州의 司饗分監官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16世紀 後半頃에 廣州에 司饗院의 分院監官이 설치되었다고 추정된다.

현재까지의 文獻 調査에 의해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으로서 「分院」의 명칭이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承政院日記」 仁祖三年(一六二五) 八月三日의 기록이다.

이에 依하면

『趙翼 以司饗院言啓曰

分院之設 自前擇其樹木茂盛之地

移來移去 而今則所設處 累年入樹取用

燔柴已盡 不得已他樹木茂盛處 擇地

移設 乃能燔造矣 本院郎廳 爲先發

遺擇地 移設舉行條件 隨後磨鍊  
啓下之意 敢稟...傳曰 依啓」

라 하여 이미 당시의 分院所設處를 他處로 옮기려는 計劃이 있었고 그以前부터도 分院이 樹木茂盛處를 따라 移動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따라서 「承政院日記」가 壬亂 때 모두 불타버려 壬亂 以前の 記錄이 남아 있지 않은 점과 仁祖三年(一六二五年)以前부터도 分院이 廣州內 樹木茂盛處를 따라 移動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仁祖三年(一六二五年)부터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을 分院으로 불렀다고 볼 수는 없으며,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이 京畿道 廣州地方에 設置되어 所用되는 沙器 需要量이 증가됨에 따라 규모가 커지고 製造作業 자체가 중요시되는 一六世紀頃에 分院으로 불려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分院이 주로 廣州地方을 中心으로 옮겨 다니게 된 것은 分院柴場이 이地方에 정해진 때문이겠지만 한편 廣州地方은 柴場을 定하고 分院을 設置하기에 여러가지 적합한 條件을 갖추은 곳이었다고 생각된다.

즉 廣州地方은 武甲山 등 樹木이 茂盛한 山地가 있어서 柴木 조달사정이 좋은데다 良質의 白土가 產出되는 곳이었고 또 製品의 주요 공급지인 서울에서 가까운 뿐만 아니라, 漢江을 利用한 材料 및 製品의 운반에도 편리하여 分院을 設置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곳이었다.

### 2) 構成

分院의 構成과 構成人員의 규모에 관하여 朝鮮王朝 전기간 중 어떠하였는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남아있는 일부 記錄을 通하여 그 진모를 짐작할 수 있다.

「經國大典」 工典(一四六九年)에 司饗院 소속의 沙器匠 三八〇名이 定期인 仁祖三年(一六二五年) 「承政院日記」에 依하면 ⑩,

「戶와 奉尼을 합하여 法定人員 一四〇名이던 分院沙器匠이 해마다 도망하여 당시에는 八二名만이 남았으며 守令들이 地方의 沙器匠을 전혀 동원해 주지 않으므로 分院에서는 노동력 不足으로 作業을 계

속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一六二五年頃에는分院 소속의沙器匠이 經國大典에 규정된三八〇名の匠人の法定人員에는 변동이 없으나(分三番立役制) 그 시기에는 훨씬 미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一七五二以來、分院이 오늘의南終面分院里에 정착하면서 운영되어 왔던 그 당시의 규모와構成에 관해 기록된淺川巧의「分厨院報膳」에分院構成人員이 총五五二名으로 기록되어 있어、分院의 규모가 時代에 따라 변해갔음을 알 수 있다.

分院의構成과構成人員에 관하여「分厨院報膳」의記錄을 通해 알아 보면 다음과 같다⑪.

監官	一名	監督官
員役	二十名	事務書記
使令	六名	심부름꾼
邊首	二名	作業監督
造器匠	十名	成形
磨造匠	十名	굽잡는 일
乾火匠	十名	乾 燥
水飛匠	十名	製 土
鍊 匠	十名	鍊 土
站 役	十八名	修 正
火 匠	七名	燔 造
助 役	七名	燔造補助
釜戶首	二名	燔造책임자
監火匠	二名	燔造살핌
書靑匠	十四名	書 工
鍊 正	二名	袖藥調合
着水匠	二名	施 釉
破器匠	二名	製品의 選別

工抄軍 一八六名 以下 雜役

運灰軍 一名

許伐軍 二〇二名

浮灰軍 一名

水上載軍 十名

水土監官 一名

收稅庫軍 一名

路下軍 二名

進上結下軍 十名

監 考 三名

총 五五二名

以上の分院構成人員中 監官을 비롯해分院경영의실무를담당하는 사람은二七名이고, 실제沙器製造의沙器匠은一〇八名, 그에沙器製造를위한雜役이四一七名으로分院構成의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分院의 운영은 철저히分業된 가운데 제작 운영되어 分院의沙器匠 가운데는 一生을 불만 때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레질로만 평생을 지내는 사람이 있어 누구나 자기가 맡은 일은 達人의 경지에 있었던 것 같다⑫.

### 3) 施設과 磁器

分院의 施設이 어떠한지에 관해서「承政院日記」肅宗二年(一六七六)八月二八日

「……官廳及作假家 庫間 依流來騰錄 令本道 以草屋 及時造作 木槽 木板 則亦依前例 令輸送事 兩道監司處行文知委 何如傳曰 允」

라 하여

『官廳과 假家、庫間을 짓는 일은 流來騰錄에 依해서 本道로 하여금 草屋을 及時造作하게 하고 木槽、木板은 前例에 따라 兩道の 監司에게 公文을 보내어 輸送하게 하였다.』

라고 記錄되어 있다.

위 기록中「官廳」은分院의事務를管掌하던곳이고「庫間」은材料와製品을保管하기위한倉庫를 뜻하며「假家」는기타부속건물로서沙器製造를위한工場을가리킨것같다.

또한「承政院日記」景宗即位年(一七二〇年)二月一七日分院을牛川으로 옮기자는의논이 나왔을때官廳、庫間以外에「工作廳」이 보여 아마도 이것이「假家」와 마찬가지로沙器製造를위한工場(閉令)으로 짐작되며, 이「工作廳」속에가마(窯)가있었다고생각된다<sup>13</sup>.

分院의가마(窯)형태에관해서

朝鮮時代陶窯址發掘調査가이루어진곳은忠南鷄籠山麓鶴峰里、全南無等山麓金谷里、京畿道廣州郡道馬里등수개소였으며그중가마(窯)의형태가확인된곳은忠南鷄籠山麓鶴峰里가마뿐이었다.

「鷄籠山麓陶窯址調查報告書」에依하면<sup>14</sup>,

『가마(窯)는山麓의傾斜面에여러개를나란히축조하였고가마의構造는모두地面을약간파서길다란구덩이의左、右윗턱으로부터粘土로벽과天井을동글게쌓아올렸으며모두칸막이가마로칸마다아궁이를결한出入口가右側に있었으며바닥은沙床이었다.』

라고하여朝鮮時代前期의가마(窯)의構造를검작해볼수있다.

分院設置와함께공造되어야하는이들가마와建物들은대개草屋으로지어진것같고그費用과作業은設置되는地方의官衙에서담당하였다<sup>15</sup>.

分院에서의沙器製造는原則上御器供給을위한것이있다.

分院에서의燔造作業은대개解多할때부터시작하여結水할때까지 계속되었으며燔造作業은司饗院에서과전되는奉事(從八品)에의해서管理되었다<sup>16</sup>.

이들의管理下에一年동안分院에서燔造되는沙器量은一定하지는 않았으나別燔(特殊沙器)燔造以外에例番즉通例의인경우「六典條例에의하면一千三百七十二竹(一竹은一〇個)〓一三、七二〇個였다.

정규적인進上沙器가주로王宮所用의一般用器와奉常寺의祭器、內

醫院의劑藥用 등으로使用되었으며이외에도외국사신의접대용에必要한沙器로도공급되었고,이밖에도一般進上沙器以外에嘉禮등王家의慶事に使用되는特殊沙器역시本院에서燔造조달하였다<sup>17</sup>.

#### 4) 白土와燔木

分院이있는廣州地方은중요한白土產出地였다.英祖二二年(一七四六年)에完成된「續大典」工典雜令條에依하면,

『司饗院燔造沙器의原料로는廣州、楊口、晉州、昆陽 등지의白土가 가장적합하다』는기록이있으며,

高宗四年(一八六七年)에편찬된「六典條例」에도

「廣州水乙土一四〇〇石을掘給하면船舶으로운반해온다」는조항이 있는데이때一年에分院에서運納하는各處의白土는合計二〇九五石으로그중半이넘는一四〇〇石이廣州土로충당하였으니<sup>18</sup>廣州土의使用量은전국 어느地方의白土보다많은것이있다.

沙器燔造에있어서原料인白土와함께不可缺한材料가燃料인燔木이었다.

分院의경영과燔木產地와의관계는白土의경우보다더깊어서대체로分院의移動은燔木產地에의해서결정되는것이였다.

대개分院이設置된당초부터司饗院은分院沙器燔造에必要한燔木의調達를위해一定한山地를支給받았으며그것이소위分院柴場折受處였다<sup>19</sup>.

分院柴場은대개廣州地方을中心으로지급되었으며그것은分院이이地方을中心으로設置되었기때문인것같다.

廣州地方의分院柴場은대개六個面に 걸쳐있었으며그것은退村面實村面、初(草)月面、刀(都)尺面、慶安面、五浦面 등이었는데<sup>20</sup>, 이들六個面은번동없이계속分院에소속되어있었고따라서分院도대개의경우이地方內에서移動하였던것이다.

分院은약十年에一回씩柴場內의樹木이茂盛한곳을따라移轉하였고한번分院이設置되어燔木을採取한곳은樹木이다시茂盛해질

때까지 비워두었다가 다음에 다시 그곳에分院을設置하여 樹木을採取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 5) 景德鎮의 御器廠<sup>(2)</sup>

明代 景德鎮에設置되었던 御用의 器皿을 燔造하는 工場으로서 御器廠의 역할과 構成 및 조직은 朝鮮朝 司饗院의 沙器製造工場으로서 分院의 역할과 構成이 매우 흡사하여 그 관계의 파악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御器廠이 景德鎮에設置된 時期에 대해 최근에는 明代 宣德年間(一四二六)三五說이 유력하며 景德鎮은 中國에 있어서 白磁、靑華白磁의 요람지였다. 이러한 御器廠에서 管陶官을 中心으로 帝室供御의 磁器를 燔造하는 임무를 맡았으며, 御器廠의 建物이나, 構成人員이 甌江에서 살던 分院의 建物이나, 構成人員과 비슷한 分業化된 方法으로 운영되어 갔음이 景德鎮陶錄에 잘 나타나 있다.

一五世紀 前半頃 明으로 부터 많은 靑華白磁가 生産로서 朝鮮王室에 들어오고 世祖年間에는 靑華顏料를 求하는 한편 靑華白磁를 만들려고 고심하는 모습이 朝鮮王朝實錄이나 慵齋叢話 기록에 나타나 있으며, 1965년에 國立博物館에 의해서 發掘된 道馬里窯에서 우수한 白磁와 靑華의 시험편 및 明代靑華白磁片이 一部發見되어, 分院이 廣州에設置되어, 磁器를 燔造해 가면서, 明代 景德鎮에設置되어 御器燔造를 위해 白磁、靑華白磁를 燔造하던 御器廠과 같은 관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明代 景德鎮의 御器廠과 朝鮮朝 司饗院의 分院과 의 관계를 밝히는 記錄이나 資料가 不足하여 확실하게 알 수 없다.

## III、廣州郡 一帶의 陶窯址

京畿道 廣州郡一帶는 司饗院의 沙器製造所로서 分院이 朝鮮時代 初期부터 成立되어 末期에 이르기까지 운영되었으며, 分院에서 燔造되었던 朝鮮時代 各種의 陶磁器들——白磁、白磁象嵌、靑磁、靑磁象嵌、靑華

白磁、鐵繪白磁、辰砂白磁——등이 發見되는 수많은 陶窯址가 廣州一帶의 구릉 위에 널려 있다.

이처럼 廣州一帶에 分院이設置된 까닭은 廣州一帶는 武甲山、양자봉 등 樹木이 茂盛한 山地가 있어서 燔木의 조달사정이 좋고 白土가 産出되는 곳이었으며 製品의 주 공급지인 서울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漢江을 利用한 材料와 製品의 운반에 便利하였기 때문이었다.

現在 廣州郡一帶의 陶窯址 分布를 보면 郡內 七個面에 集中的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총 二〇五個所로 各面에 따른 陶窯址 分布를 보면 다음과 같다.

退村面은 총 六〇個所로 郡內에서 제일 많다. 牛山里 一六개소, 觀音里 二二개소, 道馬里 七개소, 陶水里 九개소, 亭支里 四개소, 元堂里 一개소, 三成里 二개소,

草月面은 총 三八個所로 武甲里 一二개소, 鶴東里 一二개소, 仙東里 四개소, 大雙嶺里 三개소, 池月里 四개소, 雪月里 二개소, 雙東里 一개소, 酸梨里 一개소.

實村面은 총 四六개소로 新垆里 一八개소, 柳寺里 八개소, 昆池岩里 五개소, 悅美里 五개소, 五香里 五개소, 建業里 二개소, 長深里 二개소. 都尺面은 총 一一개소로 宮坪里 五개소, 祥林里 六개소.

南終面은 총 一五개소로 金沙里 七개소, 分院里 二개소, 歸歟里 六개소.

廣州面은 총 一四개소로 松亭里 八개소, 炭筏里 六개소.

中部面은 총 二一개소로 梧田里 六개소, 樊川里 一五개소. 以上の 分布에서,

廣州郡內 中退村面、草月面、實村面에 집중적으로 分布되어 있으며 지도에 依하면 武甲山 양자봉을 둘러싼 골짜기 주위에 陶窯址가 (圖 1) 밀집해 있으며 소내, 벌내, 昆池岩川 등의 주변 구릉에 대부분의 窯址(圖 2)가 널려있는 모습이이다.

다음은 총 二〇五個所에 달하는 廣州郡一帶의 陶窯址 中에서 製作時





六號窯址에서는 粉靑沙器印花文이 發見되어 주목된다. 八號窯址에서는 金沙里와 같은 雪白色의 角이진 제기접시, 鉢, 鉢 등이 出土되어 주목되며 특히 四號窯址에서는 정교한 가는 모래받침의 白磁, 靑磁 등이 發見되어 주목되었다. 현재 경희대 연습림사무소 뒷 구릉으로 수많은 匣鉢이 쌓여있으며 銘文은 出土되지 않았다.

### 七、大雙嶺里 陶窯址

草月面으로 雙嶺里에서 島坪리로 가는 큰 고갯길 넘어 右側 골짜기로 지금은 농장이 서있고 얼마전 트랙터에 의해 파괴되어 匣鉢과 마력판 단 덩굴고 있다.

현재 三개의 窯址가 有存하며, 그중 一號窯址(圖9)에서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로 접시, 사발의 굽바닥에 陰刻으로 크게 「別」이라고 되어있으며 釉는 맑고 고우며, 胎土는 정선되었다. 靑磁는 맑고綠靑이며, 唐草文이 나있는 靑華白磁盤片이 出土되었다. 「別」은 「別燔」을意味하여, 특별히 구워낸 沙器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주변窯에서는 비집돌받침의 灰白磁가 出土된다.

### 八、昆池岩里 陶窯址

老谷川の 左側 구릉 위에 큰 목장이 있으며 그 주변에 五個所의 窯址가 有存한다. 二號窯址에서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로 전접시, 사발, 접시片이 出土되며 짙은 녹색의 靑磁片도 있다. 주변窯에서는 비집돌받침의 대마디굽 灰白磁가 出土된다.

### 九、觀音里 陶窯址

牛山里에서 退村面으로 나오는 중간지대로 모두 二개소의 窯址가 확인 調査되었다. 현재는 一里, 二里, 三里로 區分되어, 그중 一里인 도

장골 二一號窯(圖8)와 二리의 담장마을 四號, 五號, 一〇號, 一一號窯址와 三里의 一七號, 一八號, 一九號窯址가 주목되는 곳이다.

특히 四號, 五號(圖10), 一〇號(圖11), 一一號窯址에서는 靑磁와 白磁, 鐵繪白磁片이 出土되며 白磁 중 접시, 사발의 굽안바닥에 「左」 「右」 「別」 銘이 陰刻되어 있어 주목되며 牛川을 경계로 「左」 「別」 「右」 「別」이 出土되고 있어 「慵齋叢話」 속의

「每歲遺司饗院官分左右邊率書吏從春之……」

이리하여 그 左, 右邊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一七號(圖22), 一八號, 一九號窯址(圖23)에서는 金沙里, 五香里窯址 出土의 陶片과 관련된 雪白磁片이 發見되고 있어 주목되어 진다.

### 一〇、亭支里 陶窯址

觀音里에서 절골을 지나 慶安川으로 가는 길목에 亭支里 마을이 있다. 마을의 右側 구릉 밭에 窯址가 四個所 有存하고 있다. 특히 마을앞에 있는 三號窯址(圖12)에서는 靑磁, 白磁가 出土되며 靑磁는 띠문이 있는 祭器와 접시片이 發見되며, 白磁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으로 굽안바닥에 「左」 「右」 銘이 陰刻되어 함께 發見되고 있다. 주변의 一號, 二號窯址(圖13)에서는 오목굽과 수직굽의 灰白磁로 굽은 모래받침이나 비집돌 받침으로 포개어 구워 비집돌 받침에서 모래받침의 오목굽으로 변화되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一一、炭筏里 陶窯址

廣州面에 있으며 사기골 마을 入口 좌우 구릉 위에 六個所의 窯址가 널려 있다. 사기골 마을은 뒤로 길은 山이 있고 앞으로는 냇물이 흐르고 있다.

六個所 中 一號窯址(圖14)에서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와 靑磁가 出土된다. 器形으로는 壺, 접시, 전접시, 잔, 사발, 鉢片이 發見되며 靑磁는 白磁胎土 위에 얇은 靑磁釉가 施釉되었으며, 干支가 있는 白

磁片이 發見되어 그 製作時期가 추정되는 곳이다.

「丙午左」(庚)戊右「(戊)申」「丁未左」「丁未右」「(辛)亥」「己(酉)左」「壬(子)의 干支가 出土되어 그 製作時期가 一六〇六年~一六一二年前後의 時期로 추정된다. 그 근거로 宣祖의 子였던 「王子 仁興君 第一子의 胎誌」접시의 굽바닥에 「丙午右」라고 陰刻되어 있어 炭筏里窯 出土 陶片과 비교해본 결과 釉色, 굽양식, 글자체까지 똑같았다.

### 一一、鶴東里 陶窯址

武甲山 南쪽기슭 골짜기에 位置하며 上, 中, 下 동막동으로 나뉘어 저있다.

주목되는 곳은 五號窯址와 九號窯址로 五號窯址에서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와 靑磁가 出土되나 銘文은 없었고 四號窯址에서는 粉靑沙器印花文이 出土되며, 九號窯址(圖15)에서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와 靑磁가 發見되며 특히 干支가 있는 白磁片이 出土되어 製作年代를 추정할 수 있었다.

一六一三年~一六一七年前後의 時期로 「庚(戊)」 「癸(丑)」 「(乙)卯右」 「丁巳右」 등이 出土되었으며 주변窯에서는 오목굽의 灰白磁片이 發見되어 炭筏里와 유사하였다.

### 一二、祥林里 陶窯址

都尺面 老谷川을 따라 宮坪里에서 老谷里로 가는 중간에 祥林里마을이 있다. 앞 뒤로 樹木이 茂盛한 山이 있고 그 주위에는 古老들에 依하면 白土가 產出되는 곳이라 전해진다.

현재 확인된 陶窯址는 沙器所마을에 三곳, 시어골 가는 길에 三곳으로 모두 六개소의 窯址가 남아 있다.

특히 沙器所 마을에 있는 一號窯址(圖16)에서 干支가 있는 白磁, 靑磁, 鐵繪白磁片이 出土되어 製作時期를 추정할 수 있는 곳이다.

靑磁는 綠色이 짙고 접시에 거치문이 있는 祭器片이 發見되며 鐵繪

白磁는 龍雲文, 「祭」銘 墓誌銘片이 發見되며 접시, 沙鉢의 굽바닥에 干支가 있다.

「辛未別」 「辛未左」 「癸酉右」 「甲戌」 「甲戌右」 「乙亥左」 「乙亥右」 「丙(子)右」銘이 있으며 製作時期는 一六三一年~一六三六年前後한 시기였다고 보여진다.

주변窯에서는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 灰白磁가 燻造되었다.

### 一四、仙東里 陶窯址

仙東國民學校에서 池月里로 가는 大路좌측 구릉으로, 고깃길 넘겨진 새로 생긴 논 위에 陶片들이 무수히 널려 있으며, 多樣한 種類의 陶磁와 器形이 出土되었다. 모두 四개소의 窯址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一號窯址(圖17)에서 靑磁, 白磁, 靑華白磁, 鐵繪白磁가 出土되었고, 그중 白磁 접시, 沙鉢의 굽바닥에 干支가 있는 陶片이 수집되어 干支에 依하여 祥林里, 松亭里窯의 중간기간인 一六四〇年~一六四九年 사이에 製作되었으며 干支가 十年分이 出土되어 分院의 十年移設을 立證해 주는 등 매우 중요한 窯址이다.

出土되는 器形으로는 전접시, 鋸齒文祭器片, 透刻墩, 벼루, 盆, 壺등이 나오며 靑磁는 어두운 暗綠色으로 氷裂이 많으며, 굽바닥에 「左」銘이 陰刻된 것도 있다. 鐵繪白磁는 雲龍, 菊, 竹, 蓮瓣, 如意頭文, 과도文, 「祭」銘이 있는 것과 墓誌銘片도 出土되며, 靑華白磁는 접시 위에 등근 원이 그려진 片이 一點 出土되었다.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넓은 굽이 出土되며, 굽안바닥에 陰刻으로 쓰여 있는 干支를 보면, 「庚辰右」 「辛巳」 「壬午左」 「癸未右」 「甲申左」 「乙酉左」 「丙戌右」 「丁亥右」 「戊子左」 「己丑」 「又」 「別」銘이 있어 一六四〇~一六四九年的 十年間 製作된 窯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변窯에서는 굽은 모래받침의 거칠은 취색, 灰色白磁가 發見되고 있다.

### 一五、松亭里 陶窯址

樊川里에서 慶安으로 가는 길목 右側마을의 구릉 위에 八個所의 窯址가 널려있다. 그 중 六개소의 窯址에서는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 白磁가 發見되며 특히 一號窯址(圖18)에서는 中心窯로서 가는 모래받침의 匣鉢을 사용한 정교한 白磁, 靑磁, 靑華白磁, 鐵繪白磁片이 出土된다. 器形으로는 壺, 瓶, 盞, 鉢, 鉢, 祭器, 大鉢片이 出土되며, 靑磁는 白磁胎土 위에 칠은 綠靑色이며 氷裂이 많이 나 있다. 鐵繪片으로는 草文, 竹文, 菊文, 「祭」銘, 詩銘片이 多樣하게 出土되며, 靑華白磁片은 雪白色的의 瓶片에 가늘게 나타나고 있다. 干支로는 「庚寅左」 「辛卯右」 「壬辰右」 「癸巳右」 등과 숫자가 쓰여있다. 「七十九」 「右四十三」 「左五十」, 干支를 通해 窯址의 製作年代를 보면 一六四九年~一六五三年 前後의 時期로 추정된다.

### 一六、柳寺里 陶窯址

實村面 晚仙里에서 여주로 가는 길 左側에 버드라미 마을이 있고, 그 마을주위로 모두 八個所의 窯址가 널려있다.  
대부분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 灰白磁가 出土되나 특히 三號窯址(圖19)에서는 匣鉢片과 함께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넓은굽 白磁와 靑磁, 鐵繪白磁片이 出土되며, 干支가 있는 白磁가 있어 窯址의 製作年代를 추정할 수 있는 곳이다.  
發見되는 干支로는 「甲辰左」 「辛丑左」 「癸卯右」 「庚子左」로서 六六〇年~一六六四年 前後한 시기였다고 생각된다.

### 一七、新垈里 陶窯址

昆池岩里와 마주보이는 전망 좋은 마을로 마을 앞에는 昆池岩川이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으로 둘러있는 곳으로 陶窯가 위치하기에는 알맞는

곳이다.

확인된 陶窯址는 모두 十八個所에 달한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鐵繪로 그려진 龍文, 草文의 항아리편이 많이 發見되고 있는 점이다.  
중요한 窯址로는 十號를 中心으로 八號, 九號, 十一號, 十二號의 窯址와 十八號의 窯址이다. 十號窯址(圖20)에서는 靑磁는 發見되지 않으며, 주변가마는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 白磁이며 多樣한 器形과 함께 「己(酉)」 「丙辰)」 「甲寅)」 「乙卯)」 등의 干支銘이 發見되어 一六六九年~一六七六年 前後한 시기에 製作되었다고 믿어지며, 특히 文獻記錄에 의해 新垈里窯가 十二年間(一六六五~一六七六) 製作된分院임이 干支에 의해서도 立證된 窯址이다. 鐵繪로 그린 白磁항아리편이 많이 發見되며, 西北쪽으로 十五리에 떨어진 池月里 塔洞으로 分院을 옮겼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다.

또한 十八號窯址에서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 白磁로 靑磁와 함께 「天」 「地」銘이 陰刻된 白磁片이 發見되어 주목되고 있다.

### 一八、池月里 陶窯址

烏坪里에서 武甲里로 가는 길 左, 右에 위치하며 굽은 모래받침의 오목굽 白磁窯址와 함께 모두 四개소에 널려있다. 특히 一號窯址(圖21)는 匣鉢片과 함께 가는 모래받침의 낮은 수직굽 白磁가 出土되어 주목을 끌며, 주변窯는 오목굽의 굽은 모래받침 灰白磁窯이다.

池月里에는 塔洞으로 불려지는 마을이 있는데 이는 「承政院日記」 肅宗二年(一六七六年) 記錄에 依하면 一六七七年부터 分院을 이곳 塔立洞으로 옮겨 沙器製造를 시작하게 했다는 製作年代가 뚜렷하여 그 전의 新垈里窯와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뿐 아니라, 分院의 變遷史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해 주는 곳이다.

### 一九、宮坪里 陶窯址

昆池岩里에서 祥林里로 오르는 길목에 宮坪里마을이 있다. 五個所의

窯址가 發見되었으며 특히 一號窯址(圖24)에서는 가늘고 굵은 모래반침의 수직 굽 白磁로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雪白의 白磁가 出土된다. 鐵繪로 雲文, 「甲」銘이 쓰여진 片이 發見되며 접시, 대접, 잔 片이 주로 出土된다. 가마벽과 응어리진 陶片에 雜物이 섞인 水裂이 많은 雪白의 釉로 五香里, 金沙里窯 出土 陶片과 매우 비슷하여 주목되는 곳이다. 주변窯에서는 굵은 모래반침의 오목 굽 灰白磁가 포개어 出土되고 있다.

## 二〇、五香里 陶窯址

悅美里에서 柳寺里로 가는 길 左側 골짜기에 位置한다. 「承政院日記」景宗元年の 記錄에 依하면 實村面 五陽洞으로 一七一七年부터 一七二〇년까지 分院이 머물렀던 곳이며, 金沙里가 있는 牛川江邊으로 옮기기 전의 窯址이다. 實村面 五陽洞은 오늘날 實村面 五香里로 불리우며, 모두 五個所에 달하는 窯址가 있으며, 그중 三號(圖25), 四號窯址(圖26)에서 金沙里窯址 出土 陶片과 같은 雪白의 수직 굽 白磁가 出土되어, 文獻의 記錄과 일치되는 곳으로 주목된다. 干支나 銘文은 없으나 製作年代를 확실히 알 수 있는 分院이 設置되었던 窯址로 池月里(塔立洞)窯址와 함께 매우 중요한 곳이다.

## 二一、金沙里 陶窯址(圖27, 28)

退村面에서 慶安川을 끼고 分院里로 가는 길 右側 골짜기에 金沙里마을이 있다. 마을의 건너편 구릉 一帶에 모두 七個所에 달하는 窯址가 널리 있다. 窯의 製作年代는 五香里에서 牛川으로 옮겨다가 다시 牛川江邊으로 옮겨지는 一七二一(二六年)頃부터 分院里로 옮겨지는 一七五二年前까지 약 三十年間 製作 운영되었다고 믿어진다. 가는 모래반침의 수직 굽 白磁로 약간 푸른빛이 있는 雪白磁이며, 우수한 靑華白磁가 많이 製作된 朝鮮陶磁史에 있어 分院里와 함께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곳이다. 一號에서 七號까지 거의 비슷한 陶片이 出土되며 白磁의 경우 角이진 접시, 祭器, 瓶, 壺 등에 靑華는 간결하게 그려 있다.

후에 있을 發掘調査를 通해, 더욱 확실히 파악될 것을 기대해본다.

## 二二、分院里 陶窯址(圖29)

廣州一帶의 分院의 최후의 宗착지로 兩水가 맞닿는 漢江을 앞에 두고 位置한다. 窯址는 현재 分院국민학교, 중학교가 세워진 운동장 右側 구릉에 수없이 많은 陶片과 匣鉢과 가마벽 片이 쌓여 있다. 「輿地圖書」楊根郡物産條에 「今增磁器 今上 壬申 移設 廣州燔造所……」라 하여, 一七五二年 金沙里窯로 부터 移設하여, 一八八三年 分院이 民營化되기까지 三十여년간 分院이 設置 운영된 곳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대부분의 陶磁器가 거의 이곳 窯로부터 만들어진 것들이다.

分院이 分院里에 정착하게 된 것은 一八세기 初에 대두된 燔木의 조달 문제로 分院固定論이 대두되어 교통이 좋은 分院里에 정착되었으며, 많은 가마가 있었으나 모두 파괴되어 현의 상 二곳으로 나누어 보면, 국민학교 入口에 있는 구릉에는 비교적 分院 初期의 金沙里 出土 陶片과 같은 陶片이 出土되는 곳이다. 가는 모래반침의 수직 굽 白磁로 祭器, 盞, 瓶, 연적 片이 發見되며 釉는 푸른빛이 있는 雪白으로 굽이 높으며 정교하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국민학교와 중학교 右側 구릉에 수없이 많이 쌓여 있으며, 특히 민영화 된 以後에 제작된 白磁, 靑華白磁 片이 쌓여 있어 區分이 어렵다.

굵은 모래반침의 두껍고 투박하며 굽이 울퉁퉁 들어간 대접, 사발, 접시 片과 靑華가 복잡하게 그려진 牡丹, 蓮花 등의 陶片이 많이 發見되고 있다.

以上の 代表的인 窯址 外에도 歸歟里의 六個所, 悅美里의 五개소, 建業里, 長深里, 三成里, 雙東里, 酸梨里, 元堂里 등에 一(一)개소씩 널리 있으며, 대부분 이들 窯址는 一五, 一六世紀頃의 비진돌반침의 대마 디 굽 灰白磁 및 粉靑沙器 窯址들이다.

#### IV、資料의 分析과 綜合

##### 一、資料의 分析

朝鮮時代 分院의 變遷過程을 파악하기 위해 分院의 位置하였던 京畿道 廣州郡 一帶의 陶窯址 調査와 文獻記錄의 資料、現存하는 遺物과의 比較資料를 中心으로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나누어 分析 검토하였다.

- 一) 文獻記錄의 窯址
- 二) 窯址 出土의 銘文
- 三) 급 형태별 分析
- 四) 陶磁 種類別 分析

위의 分析 方法에 따라 分院의 變遷過程을 규명해보자.

##### 一) 文獻記錄의 窯址

廣州郡 一帶의 陶窯址에 관한 文獻記錄에 나타난 陶窯址는 극히 적다.

그러나 그 적은 記錄일지라도 各 陶窯址의 製作年代、製作場所、移動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廣州郡 一帶의 窯址가 記錄된 文獻으로는 「世宗實錄地理誌」의 陶磁器所、「東國輿地勝覽」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備邊司謄錄」 「輿地圖書」 「慵齋叢話」 등이 있다.

① 廣州 一帶의 陶窯址에 對한 가장 오랜 記錄이 있는 文獻은 「世宗實錄地理誌」의 京畿道 廣州牧 陶磁器所의 記錄이다.

「世宗實錄地理誌」는 世宗六年(一四二四年)부터 資料를 蒐集하기 시작하여 世宗一四年(一四三二年)에 完成 되었으며, 단종二年(一四五四年)에 편찬된 「世宗實錄」中 地理誌에 수록되어 있어 「世宗實錄地理誌」에 나타난 廣州 一帶 七個所의 窯址는 一五世紀 前半頃의 窯址였음을 알 수 있다. 「世宗實錄地理誌」의 京畿道 廣州牧에 依하면 磁器所가 四곳으로

「州東伐乙川上」 「州東所山下」

「州南石掘里」 「州東羔峴」이며,

陶器所는 三곳으로

「州東草伐里」 「州南草峴」

「州西梨串」로 記錄되어 있다.

위의 磁器所는 白磁器、陶器所는 粉靑沙器를 지칭하는 것으로 믿어지며, 위의 陶磁所의 옛地名과 오늘날의地名과의 차이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번 調査된 二〇五個所에 달하는 窯址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중 「伐乙川」은 현재 벌내、樊川리로 불려지는 곳으로 樊川里 九號窯址로 추정되며, 「所山」은 현재 牛山리로 불려지는 곳으로 牛山里 二號窯址로 추정된다.

州東 羔峴은 염소고개로 陶水里 四號窯址를 가리킨다고 생각되며,

州南 石掘里는 鶴東里 一號窯址 주변이 아닌가 생각된다.

州東 草伐里는 道馬里의 과화동에 있는 粉靑窯址로,

州南 草峴은 雙東里에 있는 粉靑窯址로 생각되며,

州西 梨串은 확인 할 수 없었다.

② 다음의 文獻記錄은

「承政院日記」 第二五六冊 肅宗二年 八月一日과 八月二八日의 記錄으로 一六七六年 전후에 分院이 設置되었던 窯址銘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承政院日記」肅宗二年 八月一日.

「分院沙器 燔造之所 排設取柴 若近十年 則樹木既盡 決難繼燔 故例移於他處矣 今燔者造之設 已至十二年 切無刈柴之路 不得不移設 而以越秋冬 有所經營 可於明春始燔廣州本院屬柴山內 可合移設處 爲先癸遺郎 聽看審共地勢及辯柴難易然後 應行諸事 更考前規 磨鍊啓下舉行如何 傳 曰允」

이라하여,

『分院沙器燔造所를 設置하고 取柴하다가 十年 가까이 되어 樹木이 盡하고 燔造를 계속할 수 없게 되면 他處로 移設함이 故例이며 現 燔造所는 設置한지 一二年이 지나 柴木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를 秋多期에 옮기지 않으면 明春에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그래서 郎廳을 咨問하여 移設하기에 可合한 곳을 조사케 하였다.』

『承政院日記』肅宗二年 八月二十八日

『…該掌郎廳奉事沈瑱 往審形勢 而來呈稟 自時設處 西北距十五里許 有可設燔造所之地 地名塔立洞 依山臨水 可宜人居 亦有陳荒可 墾之地 而但值潦水 前川漲溢之時 則難通大路 分院民情 切願移設於此地云 明春分院移設 定於此處 爲之宜當…傳曰允』

이라하여,

『現分院設置處에서 西北으로 一五里 떨어진 곳에 있는 塔立洞이 前面에 개천이 漲溢할 경우 大路를 만들기가 어려운 결점은 있지만 山을 의지하고 개천에 임하여 사람이 살 수 있고 陳荒地(손을 안대서 묵고 거친어진 땅)가 있어서 分院을 設置하기에 可合한 바 分院의 民情도 이곳으로 옮기기를 원한다고 보고하여 明春에 移設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기록에서 塔立洞은 오늘날 탑골이라고 불려지는 위의 分院의 全景과 흡사한 곳으로 廣州郡 草月面 池月里 塔洞을 가르킨다고 생각되며, 池月里 塔立洞 分院 前의 一二年간(一六六五年부터 一六七六年까지)設置되었던 곳은 新岱里一帶를 가리킴을 이번 調査結果 알 수 있게 되어 製作年代가 뚜렷한 매우 중요한 資料를 알려 주고 있다.

新岱里 十號窯址에서 수많은 鐵繪白磁의 多樣한 器形과 함께, 접시와 沙鉢의 굽바닥에 陰刻으로 「己(酉)」一六六九年, 「甲(寅)」一六七四年, 「乙卯)」一六七五年, 「丙(辰)」一六七六年으로 추정되는 陶片들이 出土되었으며 鐵繪로 접시의 內底에 「甲」이라고 쓴 片이 出土되었으며, 新岱里 一〇號窯址에서 西北으로 十五里(六km) 떨어진 草月面池

月里 塔골로 불려지는 곳에 新岱里 一〇號窯址와 유사한 陶片이 出土되고 있어 池月里 一號窯址가 塔立洞을 뜻한다고 보여져 一七世紀 후반경의 分院의 變遷과 그 시기의 정확한 陶磁의 年號를 알려 주고 있다.

③ 다음 기록은 景宗即位年(一七二〇年)의 五陽洞分院에 관한 것으로 『承政院日記』景宗即位年(一七二〇年) 二月一七日.

『又以司饗院官員 以都提調意啓曰 本院燔造所 丁酉年間 移設場內 實村面 五陽洞矣 本院匠卒輩 齊聲呼籲曰 燔所近處 柴木殆盡 明年 燔木 無路繼用 若不越即移設 必將有狼狽之患 故使郎廳 移設可合處看審 則場內 牛川 樹木雖不茂盛 水路最近 間間實用 不至狼狽云 依此移設 宜當…傳曰允』이라하여

『分院燔造所를 丁酉年(肅宗四三年, 一七一七年)間에 柴場內의 實村面 五陽洞에 옮겼으나 그곳도 柴木이 殆盡하여 다시 옮기지 않으면 明年의 柴木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郎廳을 咨問하여 移設하기에 可合한 곳을 찾게 하였던바, 柴場 內의 牛川이 樹木이 茂盛하지는 않으나 水路가 가까워서 柴木을 間간이 實用하면 狼狽되지 않을 것 같다』는 司饗院官員의 意見を 좇아 分院을 옮기게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實村面 五陽洞은 현재는 實村面 五香里로 불려지는 곳으로 五香里 三號, 四號窯址를 가르킨다고 믿어지며, 窯의 製作年代는 一七一七年부터 一七二〇年 사이로서 그후 牛川으로 分院을 옮겼음을 알 수 있다. 실제 五香里 三號, 四號窯址 出土陶片은 雪白의 약간 푸르름이 있는 白磁로 金沙里窯址, 觀音里 一七號, 一八號, 一九號窯址, 宮坪里窯址 出土片과 매우 유사하여 그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곳이다.

一七一七年부터 一七二〇년까지 製作은 영되었던, 五陽洞 分院의 發見과 확인 調査는 現在의 金沙里窯의 製作年代를 보다 分明히 해 줄 뿐 만 아니라, 朝鮮時代 一八世紀 初의 分院이 設置되었던 곳과 그 시기의 陶磁의 編年을 보다 확실하게 해 준 점에서 매우 중요한 資料라 할 수 있다.

④ 다음 기록은分院里窯의製作時期에 관한 것으로「輿地圖書(上)」京畿道廣州鎮營소속楊根郡物産條記錄이다.

「今增磁器今上壬申移設廣州燔造所于郡南五十里南終面每歲司饗院官監造御用之器」  
라 하여,

『壬申年(英祖二八年,一七五二年)에廣州燔造所가楊根郡南終面으로移設되어每年司饗院官員이御器燔造를 감독하였다.』  
위에서,

一七二一年頃에牛川으로 옮겼던分院이 다시牛川江邊으로 옮겼다가一七五二年(英祖二八年壬申)에分院里로 옮겼음을 말해 주고 있어分院里窯의製作時期를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위의文獻記錄에 나타난窯址로서一五世紀前半頃の窯址로는

「伐乙川—樊川里」

「所山—牛山里」

「羔峴—陶水里」

「石掘里—鶴東里」

「草伐里—과학동」

「草峴—雙東里」로 추정되는 곳과一七世紀後半頃の

一六六五—一六七六 新垈里分院

一六七七—? 池月里(塔立洞)分院

一八世紀前半頃の

一七一七—一七二〇 五香里(五陽洞)分院

一八世紀中葉頃の

一七五二—一八八三 分院里分院

이文獻記錄과 실제窯址調査에서 밝혀졌다고 믿어진다.

## (二) 窯址出土의銘文

廣州郡一帶의二〇五個所の窯址에서 많은銘文과干支가 있는陶片

이出土되어各窯址의製作時期와移動、變遷과정、製作手法、種類를 밝히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들窯址의出土銘文은 주로 대접이나,沙鉢, 접시 등의 굽안바닥에 예리한 못이나 대칼에 의해陰刻되어 쓰여 있거나,靑華나鐵繪로「祭」「福」「康」「壽」「寧」「甲」등이 쓰여 있는銘文이出土되고 있다.

陰刻된銘文을 살펴보면,

「仁」「大」「上」「又」

「天」「地」「玄」「黃」

「別」「左」「右」

「干支左」「干支右」「干支別」等이 있으며 이들銘文과 함께出土되는各種의器形과文樣,胎土와釉藥, 굽의 형식, 現存하는年代가 확실한遺物과의 비교, 검토로서 그製作年代를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干支」가 있는銘文의發見은各窯의製作時期,製作期間,變遷과정을 밝히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들銘文중製作時期가 비교적 오랜 것부터分析하여各窯址의製作時期와銘文의意味를 파악해 보자.

### 1) 「天」「地」「玄」「黃」(圖30)

위의銘文이出土되는窯址로는樊川里九號,道馬里一號,武甲里二號,牛山里九號,梧田里一號,新垈里一七號窯址等六個所가 있다. 이들外에도陶水里四號,鶴東里五號,觀音里二一號窯址等이 있으며銘文은發見하지 못하였으나同質同類의陶片이出土되는 곳이다.

이들이出土되는陶窯址는 공통적으로靑磁,白磁,靑華白磁의 대접, 사발, 전접시,盒,壺,瓶,盞等의多樣한器形이出土되며,白磁는釉藥과胎土가 정선되어 있고, 가는 모래받침으로 정교하게製作되어廣州一帶에서 가장 우수한陶片들이다.

이들窯址는匣鉢이 무수히 쌓여 있으며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白磁로出土되며 이가마를中心으로 주변가마자리에서는 비집돌받침의 대마디굽白磁가出土되는 것이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이들 銘文은 주로 대접, 沙鉢, 접시, 盒의 굽안바닥에 대칼에 依해 陰刻된 모습으로 發見된다.

天字文에 있는 이들 「天」「地」「玄」「黃」의 意味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한 가마자리(窯址)에서 함께 섞여서 出土되는 것으로 보아 窯內에 燻造되기 전에 官吏에 依해 區分을 위해 監造된 記號이거나, 경북궁 근정전에 있는 倉庫에 「天字庫」「地字庫」등이 있어 그 所用의 區分기호가 아닌가 생각되나 確實히 알 수 없다.

극히 우수한 陶片에 쓰여진 銘文이 出土되는 窯址가 서로 다른 곳에 六個所 내지 九개소에 널려 있어 이들 窯들이 시기를 달리해서 서로 變遷移動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天」「地」「玄」「黃」의 銘文이 出土되는 이들 窯址의 製作時期는 廣州一帶에 司饗院의 沙器製造場으로서 分院이 設置영위된다고 믿어지는 一五世紀後半頃인 世祖, 成宗年間부터 一六世紀 前半頃까지로 그 製作時期를 추정해 볼 수 있으며 이들 窯址들은 시기를 달리해서 燻木의 조달을 위해 樹木이 茂盛한 곳을 찾아 약 十年間을 주기로 變遷移動하였다고 믿어진다.

이들 窯址의 陶片들은 年代가 確實한 15世紀後半, 16世紀頃の 胎誌石과 함께 出土되는 胎缸의 釉色, 胎土, 燻造方法 등 매우 비슷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들 窯址 간의 變遷관계는 確實하지 않으나, 出土 陶片의 質에 따라 樊川里窯에서 道馬里窯로, 다시 武甲里窯를 거쳐 牛山里로, 다시 梧田里窯에 옮겨졌다. 新垈里窯로 變遷移動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2) 「別」

위 銘文이 出土되는 窯址는 大雙嶺里一號, 觀音里四號, 五號窯址에서 出土된다.

접시, 沙鉢의 굽안바닥에 큼직하게 「別」銘이 陰刻되어 있으며, 아울러 靑磁, 靑華白磁片이 함께 出土되고 있다.

「別」은 「別燻」을 나타내는 것으로 嘉禮 등 王家의 慶事에 使用되는

특별히 燻造한 沙器를 뜻한다고 생각된다.

製作時期는 陶片의 質로 보아 「天」「地」「玄」「黃」銘이 出土되는 窯의 다음시기인 「左」「右」銘이 시작되는 一六世紀中葉頃으로 추정된다. 大雙嶺里一號의 경우 「別」銘만이 出土되거나 觀音里四號, 五號의 경우 「左」銘과 함께 드물게 出土되고 있어 주목된다.

### 3) 「左」「右」(圖31)

觀音里四號, 五號, 一〇號, 一一號窯址, 亭支里三號窯址에서 發見되고 있다.

靑磁, 白磁와 함께 드물게 鐵繪白磁片이 出土되었으며 주로 白磁의 접시, 사발, 盒의 굽안바닥에 「左」「右」銘이 드물게 「別」銘과 함께 큼직하게 陰刻으로 쓰여있다.

「左」「右」의 意味 역시 명확하지 않으나 成倪의 「慵齋叢話」의 記錄에

『每歲遣司饗院官分左右邊, 各率書吏, 從春至秋監造而輸納于御府錄其功勞而等等之, 優者賜物』

라고 기록되어 있어,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다.

『매년 사옹원 관리가 과견되어 左, 右邊으로 나누어……』

그 「左」「右」는 左, 右邊을 가리켰다고 생각된다. 실제 觀音里四號, 五號窯址에서 「左」銘이 出土되고, 개울 건너 반대편 구름에 있는 觀音里一〇號, 一一號窯址에서는 「右」銘이 出土되어 개울(牛川)을 사이에 두고 「左, 右邊」의 意味를 지녔었다고 생각된다.

다음의 亭支里三號窯址에서는 「左」「右」銘이 함께 한 窯址에서 發見되고 있어 司饗院官이 左, 右邊의 二班으로 나누어 監造했을 때, 左邊의 監造한 그릇에는 「左」字를, 右邊이 監造한 그릇에는 「右」字를 쓴 것으로 意味를 추정해 볼 수도 있다.

이러한 觀音里四號, 五號, 一〇號, 一一號, 亭支里三號窯址 및 同質의 陶片이 出土되는 昆池岩里窯址들이 16世紀後半頃으로 그 製作時期가 추정되고 있다.

특히 亭支里三號窯址 주변 窯址인 一號、二號、四號窯址에서는 굽은 모래받침의 굽바닥이 오목한 灰青色의 白磁片과 비진물 받침의 오목한 것과 수직굽의 취색 白磁片이出土되어 一六世紀末頃에 있었던 과도기적인 굽양식이 나타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年代가 확실한 白磁鐵繪誌石이 一六世紀後半頃에出土되는 예가 많아 위의 가마(窯)出土片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4) 「干支左」 「干支右」

「左」 「右」 「別」銘 외에 「干支左」 「干支右」 「干支別」銘이出土되어, 窯의 製作時期、製作期間、窯의 變遷을 통한 先後 관계등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資料들로서 이번 調査研究에 있어 가장 큰 수확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이들 干支가 나타나는 窯의 製作時期는 함께出土되는 陶片의 種類、器形、文樣、굽의 모습을 現存하는 年代가 확실한 一六〇六年의 仁興君 第一子 白磁胎誌첩시(國立中央博物館所藏)와 一六二六年、一六二七年、一六三二年的 仁興君 第一女、第二小主、第三小主의 白磁胎誌첩시와 胎缸에 陰刻된 干支銘과 調査된 窯의 出土陶片과 똑같은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燔造方法、釉色、굽의 양식이 共通되어 干支가出土되는 窯의 製作時期가 一七世紀 光海君、仁祖、孝宗、顯宗年間에 製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左」 「右」의 銘文만出土되는 觀音里、亭支里窯의 뒤를 이어 設置은 영되었다고 믿어진다.

이들 窯址에서出土되는 陶片의 특징은, 干支가 陰刻된 白磁와 함께 靑磁、鐵繪白磁가 주로出土되며, 드물게 靑華白磁片이出土되고 있는 점과, 한 窯址에서 「干支左」 「干支右」가 드물게 「干支別」 「又」銘이 함께發見되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窯址의 陶片은 모두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으로 정교하게 匣鉢을使用하여 燔造한대 대하여 그 주변의 窯址들은 모두 굽은 모래받침의 灰青色、灰色등의 오목굽의 白磁가 포개어 燔造된 상태로出土된다는 점으로서 分院에 있어 中心窯와 주변窯와의 관계를 알려주는

것으로서 주목할 사실이라 생각된다.

특히 仙東里一號窯址에서 十年에 해당되는 各해의 干支의 發見으로 文獻에 나타난 分院이 樹木茂盛處를 따라 十年에 한번씩 分院 柴場內를 옮겨하였다는 사실을 立證할 수 있었던 점이다.

干支가出土되는 陶片의 分析에 따라 一七世紀初인 一六〇六年前後부터 一六世紀末의 亭支里三號窯址와 비슷한 굽의 형태를 지닌 窯址가 廣州面 炭復里窯로서 그 뒤를 이어 草月面 鶴東里九號窯址로 다시 都尺面 祥林里一號窯址로, 이어 一六四〇~一四九九年 사이의 草月面仙東里一號窯址로, 다시 一六五〇年代의 松亭里一號窯址로, 그 뒤를 이어 實村面 柳寺里三號窯址로, 다시 一六六五~一六七六年頃の 草月面 新岱里窯址로, 다시 그 뒤를 이어 草月面 池月里一號窯址로 移動變遷하여 갔음을 알 수 있다.

各 窯址에서出土되는 干支의 資料는 다음과 같다.

#### 〔一〕 炭復里一號窯址

「丙午右」——一六〇六

「丁未左」——一六〇七年

「己(酉)」——一六〇九年

「辛(亥)」——一六一一年

「壬(子)左」——一六一二年

※ 一六〇六年~一六一二年(宣祖三九年~光海君四年)前後한 製作時期

#### 〔二〕 鶴東里九號窯址

「癸(丑)左」——一六一三年

「乙(卯)右」——一六一五年

「丁巳右」——一六一七年

※ 一六一三年~一六一七年(光海君五年~九年)前後의 製作時期

#### 〔三〕 祥林里一號窯址

「辛未左」 「辛未右」——一六三一年

「辛未別」——一六三二年

「癸酉 右」——一六三三年  
 「甲戌」——一六三四年  
 「乙亥 左」——一六三五年  
 「丙(子) 右」——一六三六年  
 ※ 一六三一年～一六三六 (仁祖九年～一四年) 前後한 製作時期。

己) 仙東里 一號窯址

「庚辰 右」——一六四〇年  
 「辛巳 左」——一六四一年  
 「壬午 右」「壬午 左」——一六四二年  
 「癸未 左」「癸未 右」——一六四三年  
 「甲申 左」「甲申 右」——一六四四年  
 「乙酉 左」——一六四五年  
 「丙戌 左」——一六四六年  
 「丁亥 左」「丁亥 右」——一六四七年  
 「戊子 左」「戊子 右」——一六四八年  
 「己丑 左」——一六四九年  
 ※ 一六四〇年～一六四九年(仁祖一八年～二七年)까지의 製作時期

口) 松亭里 一號窯址

「己丑 左」——一六四九年  
 「庚寅 左」「庚寅 右」——一六五〇年  
 「辛卯 右」——一六五一年  
 「壬辰 右」「壬辰 左」——一六五二年  
 「癸巳 右」——一六五三年

※ 一六四九年～五三年(仁祖二七年～孝宗四年) 前後한 製作時期

巳) 柳寺里 三號窯址

「庚(子)」——一六六〇年  
 「辛丑 右」——一六六一年  
 「癸卯 右」——一六六一年

「甲辰 左」——一六六四年

※ 一六六〇年～六四年(顯宗一年～五年) 前後한 製作時期

人) 新岱里 一〇號窯址

「己(酉) 左」——一六六九年  
 「甲寅 右」——一六七四年  
 「乙卯」——一六七五年  
 「丙(辰)」——一六七六年

※ 一六六九年～一六七六年(顯宗一〇年～肅宗二年)의 干支가 出土되었으나 文獻에 依해 보충하면 一六六五年～一六七六年으로 製作期間이 추정됨.

以外的 「甲」은 匣燻으로 구운 沙器를 뜻한다고 보이며, 「上」은 上品을 意味한다고 생각된다.

靑華白磁의 「壽」「福」「康」「寧」등은 窯址나 窯의 製作年代 추정에 큰 도움이 안 되어 略한다.

[註]

- ① 「經國大典」吏典、京官職條
- ② 「經國大典」兩內 各差備條
- ③ 「經國大典」工典、工匠條
- ④ 「增補文獻備考」司饗院條
- ⑤ 「世祖實錄」卷四十二 世祖十三年 丁亥四月 乙亥條 『改司饗房爲 司饗院 始置祿官』
- ⑥ 「經國大典」吏典、京官職、司饗院條
- ⑦ 「承政院日記」第四四〇三冊 肅宗二八年 三月二二日  
 司饗院啓曰 分院沙器進上 例在於六日 即今功役未半 而燻造官奉事李宜璋 昨日政 移拜司宰監直長 所當以他郎聽 代送畢役……

- ⑧ 「經國大典」工典、工匠條
- ⑨ 與平武彥「李朝」陶器講座 雄山閣發行。一九三七
- ⑩ 「承政院日記」仁祖三年七月二日  
 李敬求 以司饗院言啓曰 本院沙器匠 法典內戶 奉足拜一千一百四十名內 今年逃故稱頤 只存八百二十一名……此時外方守令 朝家命令 專不奉行 置之相忘

之域 極爲痛駭 若不別樣 必無終年 起送之理……」

① 淺川巧「朝鮮陶磁名考」東京 朝鮮工藝刊行會 一九三二、P P 一三二、一四二

② 丙庸海「人間文化財」白磁陶工 P 二四〇。

③ 姜萬吉「分院研究」亞細亞研究 第二十號 一九五九年 P 九

④ 野守健、鷄籠山麓陶窯址調查報告、昭和二年、古蹟調查報告、第一冊、朝鮮總督府。

⑤ 「承政院日記」肅宗二年 八月二十八日

「……官廳及作假家、庫間、依流來騰錄今本道以草屋及時造作木造木板……則亦依前例令輸送事、兩道監司處行文知委何如傳曰 允」

⑥ 註 7) 社 丕。

⑦ 「承政院日記」仁祖三年六月一七日。

「李蔡以司釜院言啓曰 本院外方沙器匠立役之數 年年減縮 餘存者 僅十分之一 而沙器燻造之役 日漸浩大 如各陵殿祭器 年年奉常寺督俸之數 及內醫院藥時進排之數 不知其幾 而物力竭乏 進上沙器 僅得成形……」

⑧ 「大典條例」卷之二、吏典、司饗院條

⑨ 姜萬吉「分院研究」亞細亞研究、一九六五、P 一八。

⑩ 「一日省錄」正祖一八年一月一六日「楊州、廣州倂結摘奸史官徐俊輔書啓曰……但分院次知山火田在於退村、實村、初月、刀尺、慶安、五浦六面……」

⑪ 尾崎洵盛「明代の陶磁」御器廠の創設及管理の變遷 P 六、三一

⑫ 世祖實錄 卷三〇 世祖九年五月

全羅道敬差官丘致峒得回回青於康津以進。

世祖實錄 卷三一 世祖九年七月

世祖實錄 卷三四 世祖十年八月

睿宗實錄 卷八 睿宗元年十月

全羅道觀察使曰康津縣所產回回青魯已採取試驗間有真實者鄉可訪問公私沙器燻造時須用回回青疑似沙器土試驗以啓 邑人得此彩色以進者或賞職超資叙用或賞布五十匹廣諭本道居民拜諭諸道

(國立中央博物館學藝士)



圖 1、武甲山 全景



圖 2、慶安川 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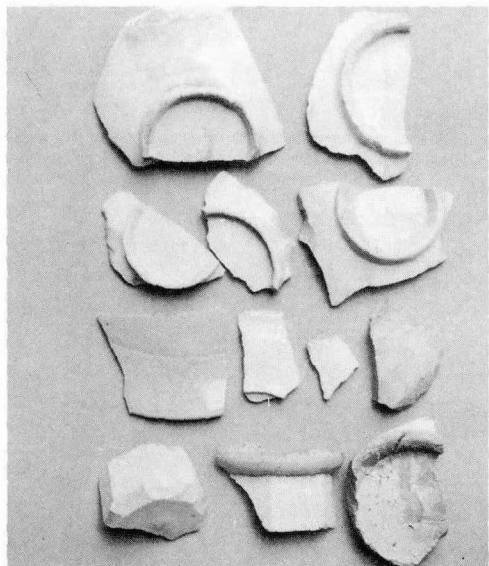


圖 6. 牛山里 9號窯址



圖 3. 樊川里 9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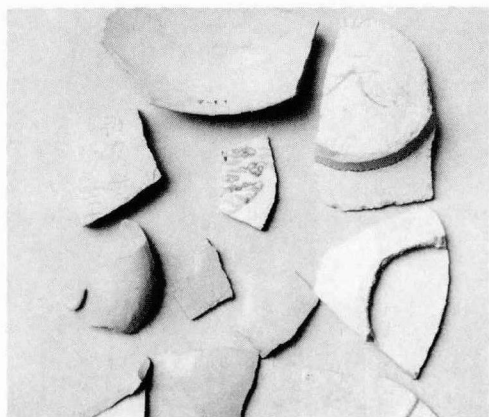


圖 7. 梧田里 1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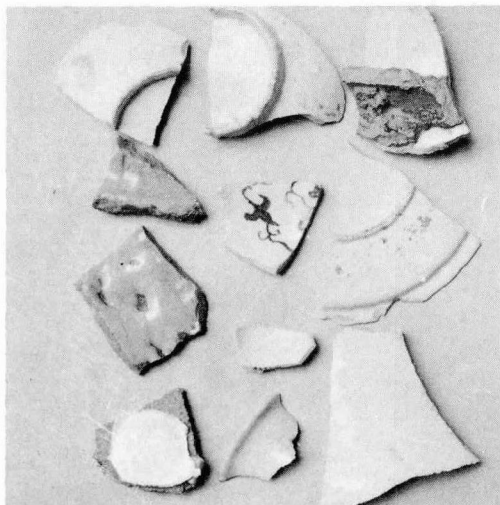


圖 4. 道馬里 1號窯址



圖 8. 觀音里 21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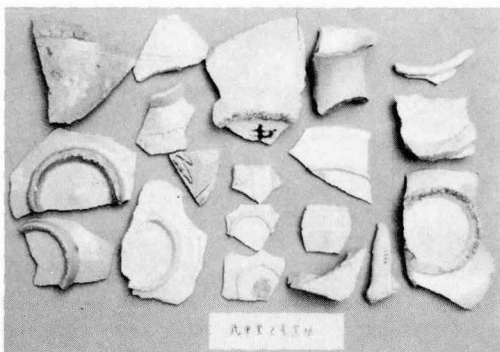


圖 5. 武甲里 2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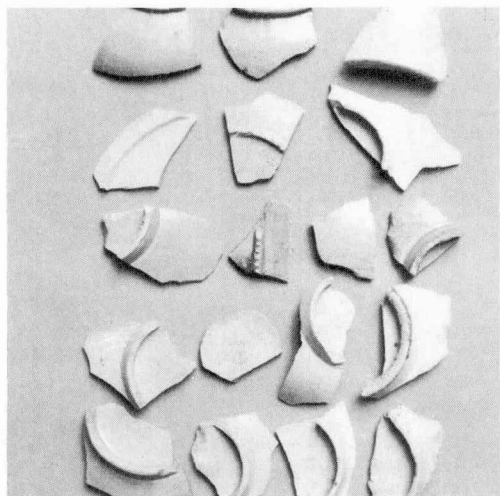


圖 12. 亭支里 3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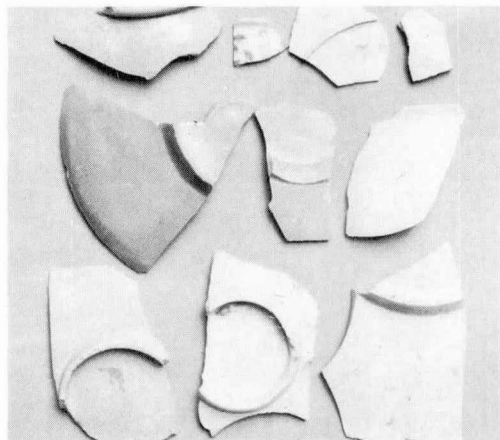


圖 9. 大雙嶺里 1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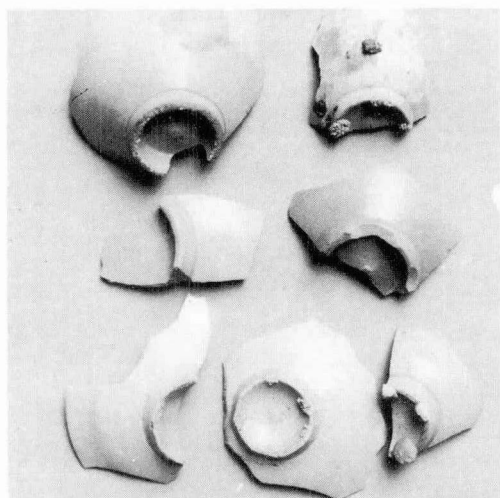


圖 13. 亭支里 1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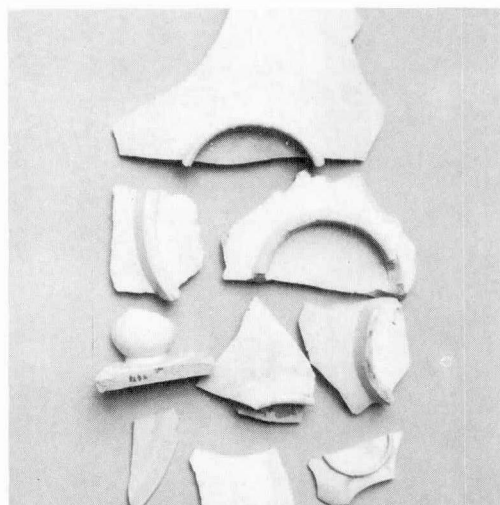


圖 10. 觀音里 5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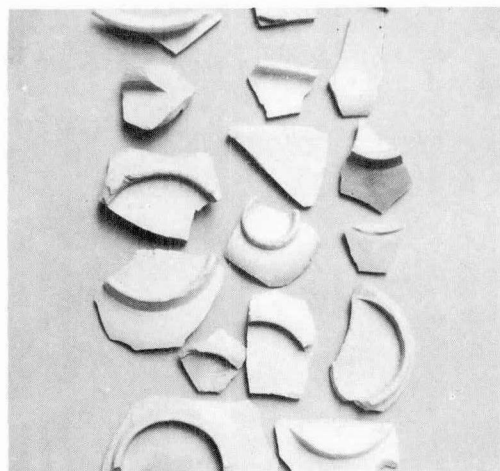


圖 14. 炭筏里 1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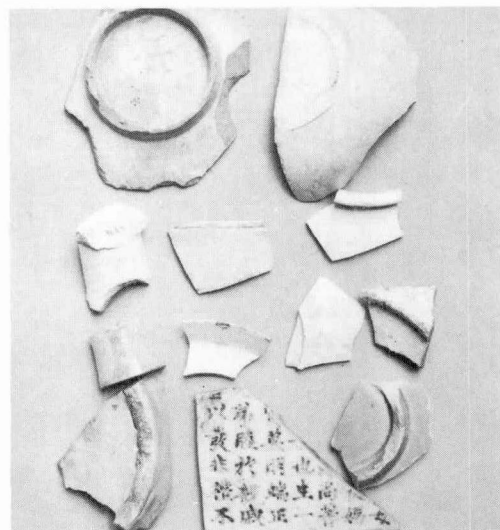


圖 11. 觀音里 10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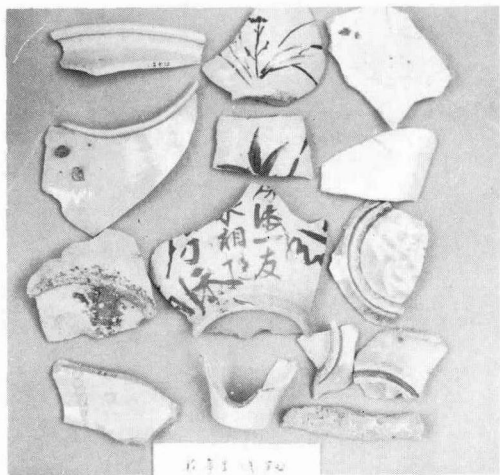


圖 18. 松亭里 1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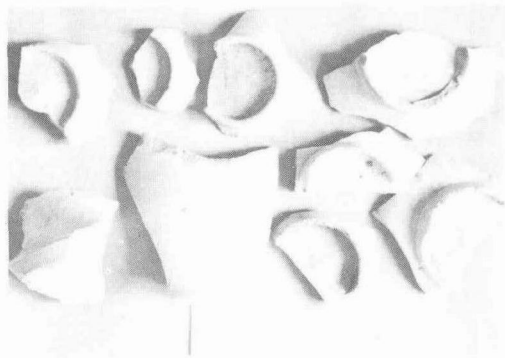


圖 15. 鶴東里 9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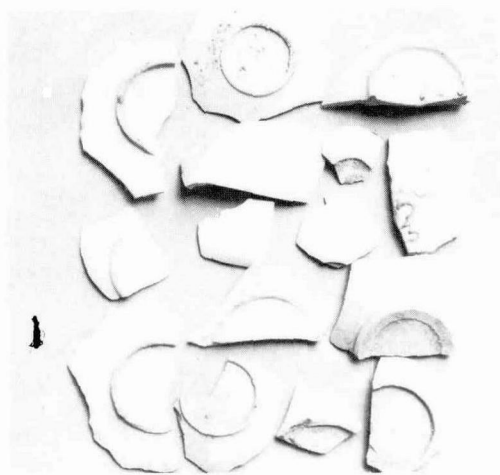


圖 19. 柳寺里 3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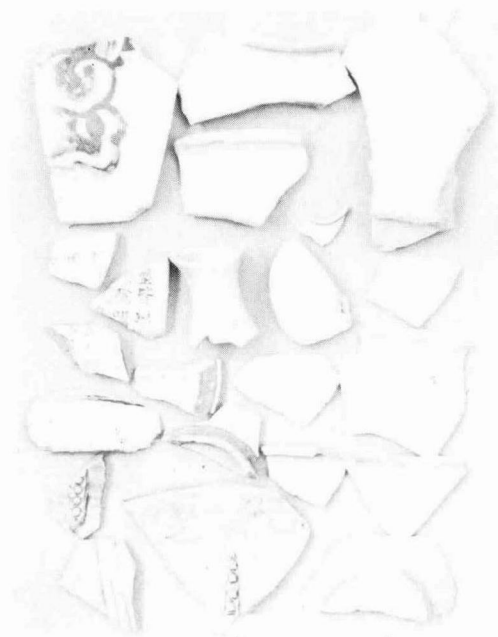


圖 16. 祥林里 1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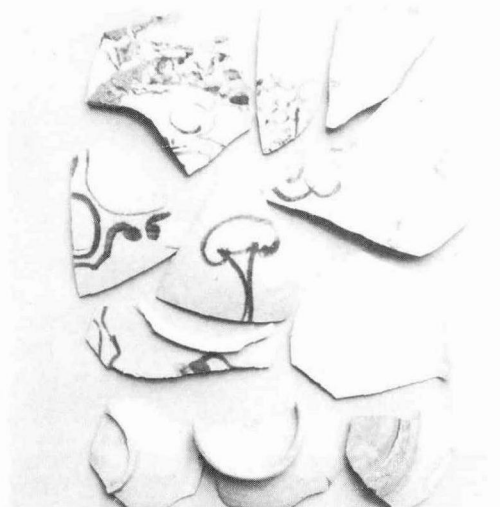


圖 20. 新垠里 10 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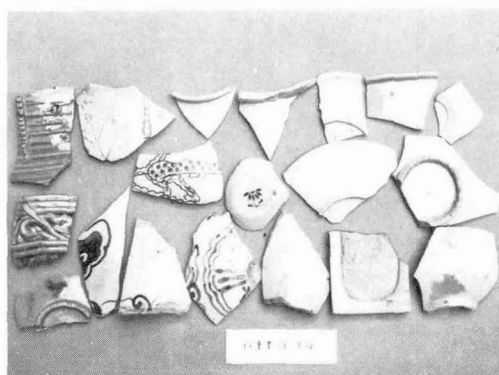


圖 17. 仙東里 1 號窯址



圖 24. 宮坪里 1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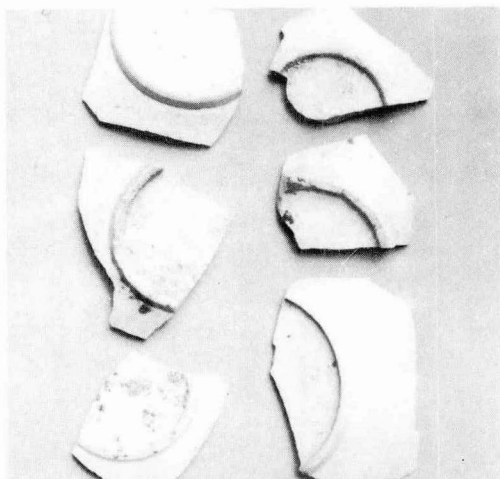


圖 21. 池月里 1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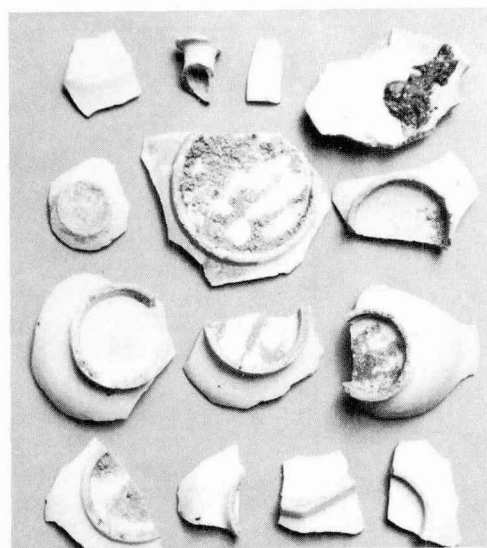


圖 25. 五香里 3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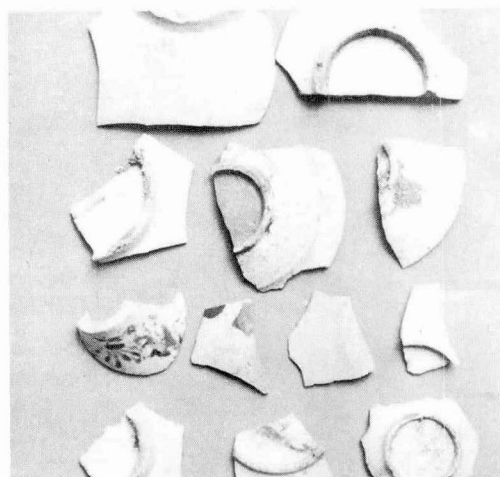


圖 22. 觀音里 17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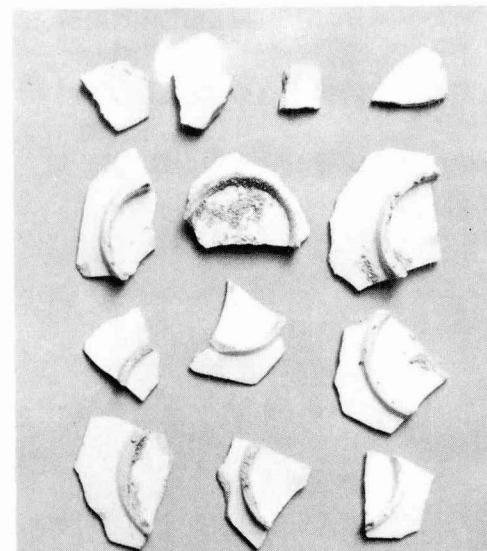


圖 26. 五香里 4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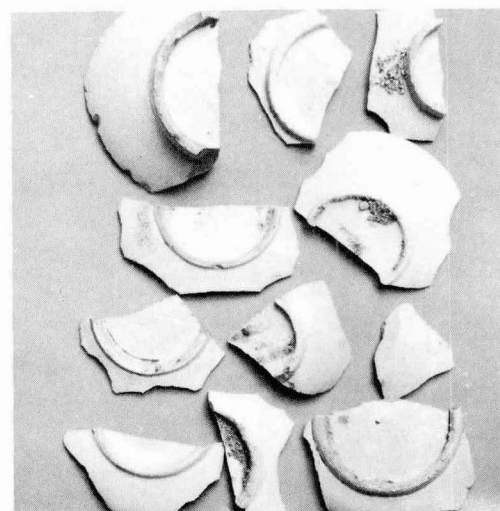


圖 23. 觀音里 19號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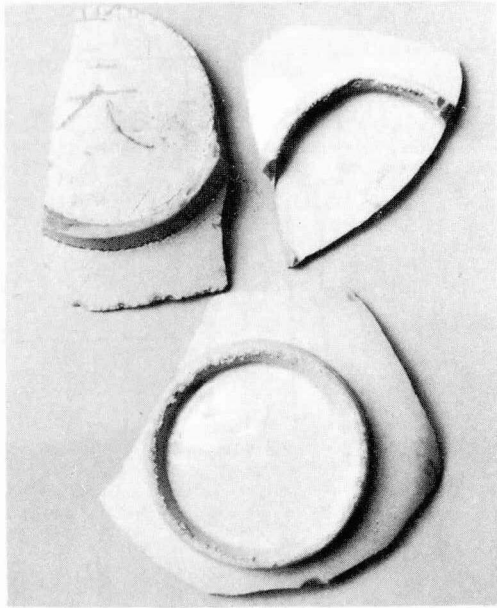


圖 30. 「天」「地」「衣」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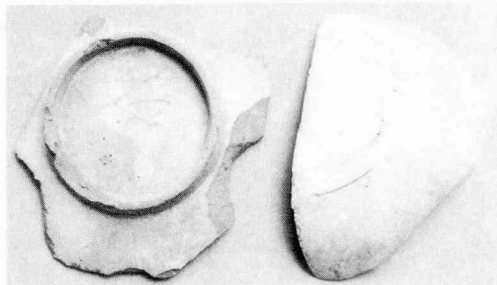


圖 31. 「右」「左」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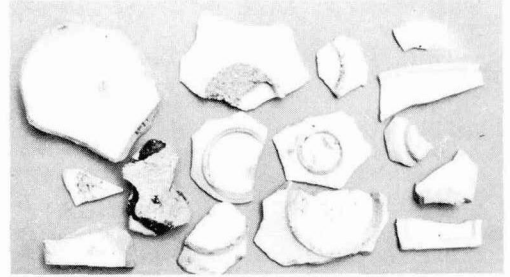


圖 27. 金沙里 1號窠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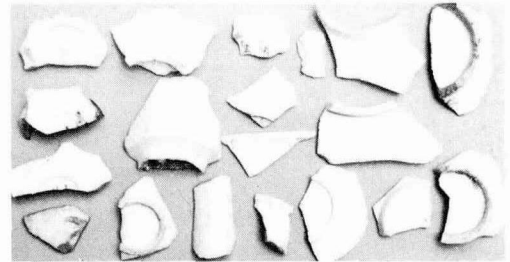


圖 28. 金沙里 3號窠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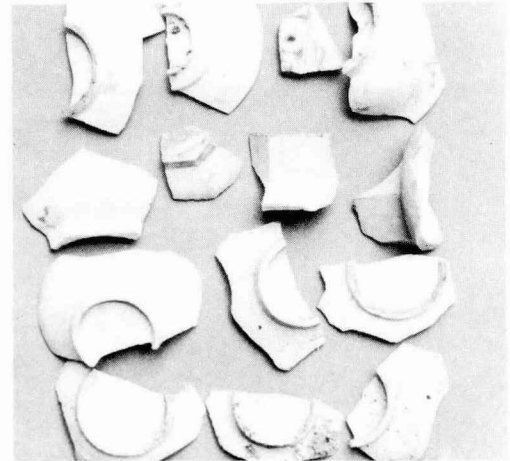


圖 29. 分院里 1號窠址

# 韓國의 佛教服飾에

## 關한 研究(二)

傳存遺物을

中心으로

任 榮 子

朝鮮王朝時代의 法衣

羅麗 千年을 通하여 長久한 세월에 걸쳐 이 나라의 精神의 支柱 力을 弱을 하였던 佛敎는 時代가 降下하여 敎法이 차츰 弛弛되고 僧侶가 점차 腐敗하여 감에 따라 麗末에 이르면서 衰頹하기 始作하다가 새로운 李氏 王朝가 開國된 뒤로부터는 國初부터 계속되는 배척과 억압政策에 밀려나 思想界의 指導權을 儒敎에게 양보하고 蹤跡을 거두어 멀리 山中으로 도피하여 沒落의 一路를 걸었다.

그러나 李朝의 佛敎가 外的으로는 비록 斜陽길을 걸었지만 그 急進的인 生活은 反面 內的인 修行을 더욱 切實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그것은 朴해와 수난을 겪은 가운데서도 많은 名僧 高衲이 배출되어 찬연한 신라와 고려불교의 전통을 계승할 수 있었다. 이 時代의 法衣로는 護國의 僧將 西山大師의 袈裟를 비롯하여 泗溟、碧岩大師의 袈裟와 長衫이 전해오고 있다.